

---

# KSA E-News

---

12월 1주차

기획조사팀

## 해운 지수

- ▷ 건화물선 운임 지수
- ▷ 건화물선 평균운임(\$/Day)
- ▷ 컨테이너 운임지수
- ▷ 선박 연료유(380CST, \$/Ton)

## 선종별 시황

- ▷ 벌크 시황
- ▷ 컨테이너 시황
- ▷ 탱커 시황

## 세계 경제 및 선대 공급/해체 현황

- ▷ 수주 잔량 추이
- ▷ 신조 발주 추이(DWT)
- ▷ 선박 해체 추이(DWT)
- ▷ OECD 산업 생산 증감률
- ▷ 중국 PMI 추이

## 국내 해사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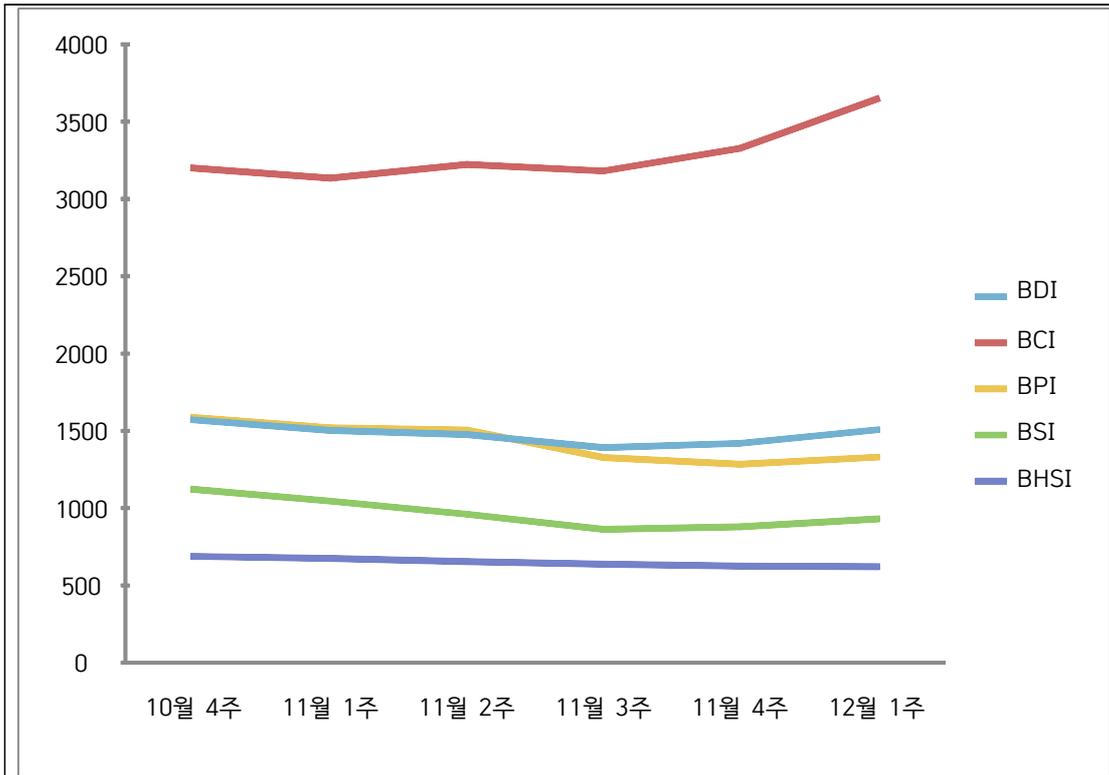
- ▷ 한국해운연합(KSP), 구조조정 첫 성과

## 국제 해사이슈

- ▷ 머스크라인 함부르크 수드 인수 완료

## 해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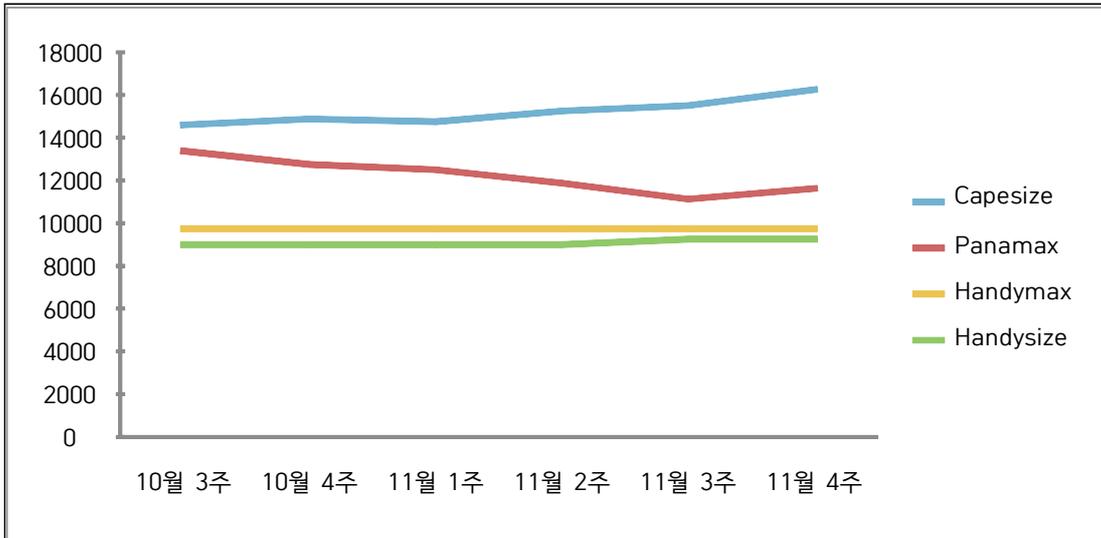
### ○ 건화물선 운임 지수



구분	10월 4주차	11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2월 1주차
<b>BDI</b>	1,570	1,502	1,476	1,391	1,419	1,506
<b>BCI</b>	3,199	3,134	3,223	3,181	3,328	3,646
<b>BPI</b>	1,586	1,519	1,505	1,327	1,283	1,329
<b>BSI</b>	1,121	1,045	960	862	879	929
<b>BHSI</b>	687	674	653	637	624	620

※ BSI : Baltic Supramax Index / BHSI : Baltic Handysize Index  
(출처 : Clarkson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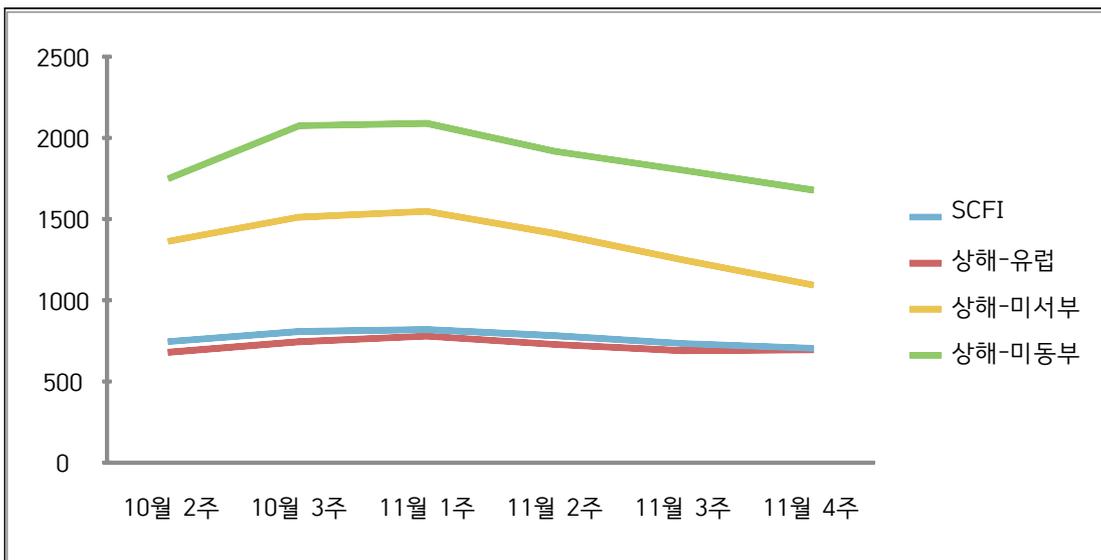
○ 건화물선 평균운임(\$/Day)



구분	10월 3주차	10월 4주차	11월 1주차	11월 2주차	11월 3주차	11월 4주차
Capesize	14,600	14,875	14,750	15,250	15,500	16,250
Panamax	13,375	12,750	12,500	11,875	11,125	11,625
Handymax	9,750	9,750	9,750	9,750	9,750	9,750
Handysize	9,000	9,000	9,000	9,000	9,250	9,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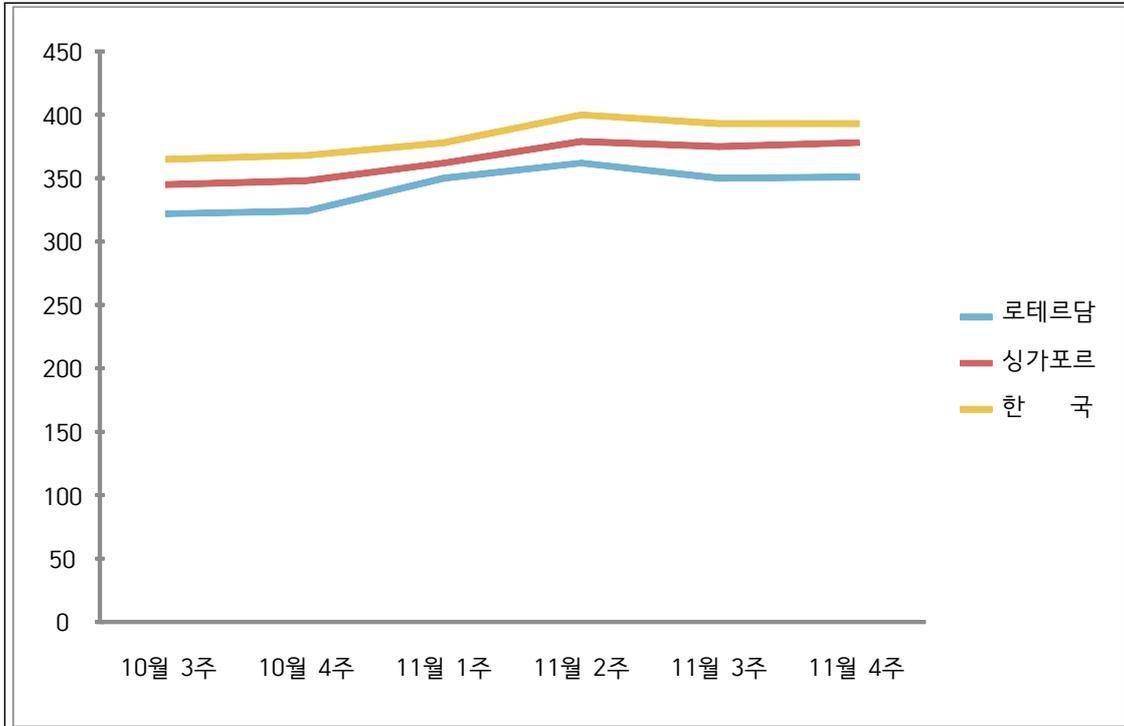
(출처 : Clarkson Research 1년 정기용선 운임 평균)

○ 컨테이너 운임지수



구분	10월 2주차	10월 3주차	11월 1주차	11월 2주차	11월 3주차	11월 4주차
SCFI	747	807	819	782	734	705
상해-유럽(\$/TEU)	681	744	779	728	689	694
상해-미서부(\$/FEU)	1,366	1,512	1,548	1,411	1,249	1,097
상해-미동부(\$/TEU)	1,755	2,075	2,089	1,917	1,801	1,681

○ 선박 연료유(380CST, \$/Ton)



구분	10월 3주차	10월 4주차	11월 1주차	11월 2주차	11월 3주차	11월 4주차
로테르담	322	324	350	362	350	351
싱가포르	345	348	362	379	375	378
한국	365	368	378	400	393	393

(출처 : Clarkson Research)

## 선종별 사항

### 1 벌크 사항

- 케이프 사이즈의 경우 서호주-중국 항로의 화물량 증가로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났다. 항로 운임은 \$9/Tonne 증가하여, 케이프사이즈 스팟 운임은 \$27,576/Day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최고치이다.
- 파나막스의 경우 약세를 나타냈다. 파나막스 사이즈 화물의 중국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대서양의 경우 지난 주 보험세를 유지했다.
- 핸디사이즈의 경우 주초반 보험세를 나타냈으나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화물량 증가로 주 후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 2 컨테이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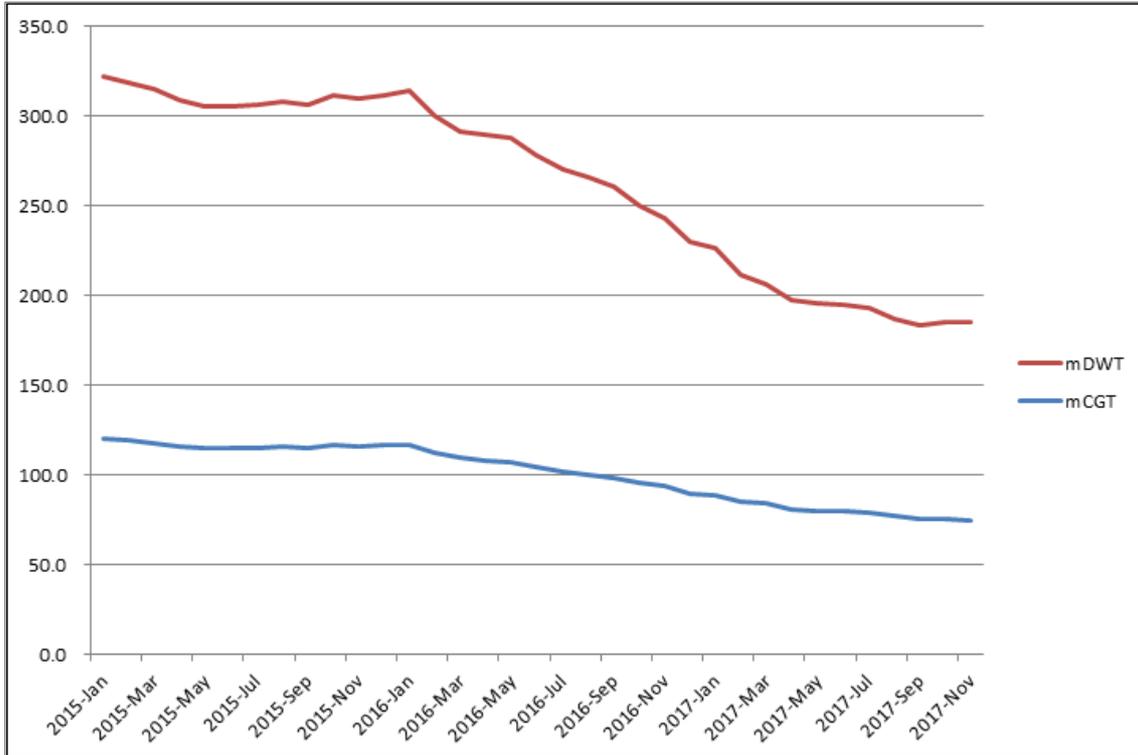
- 아시아 피더 컨테이너 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2,500teu 급 선대의 운임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휴가철 이전 운임상승은 선복량이 충분한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 3 탱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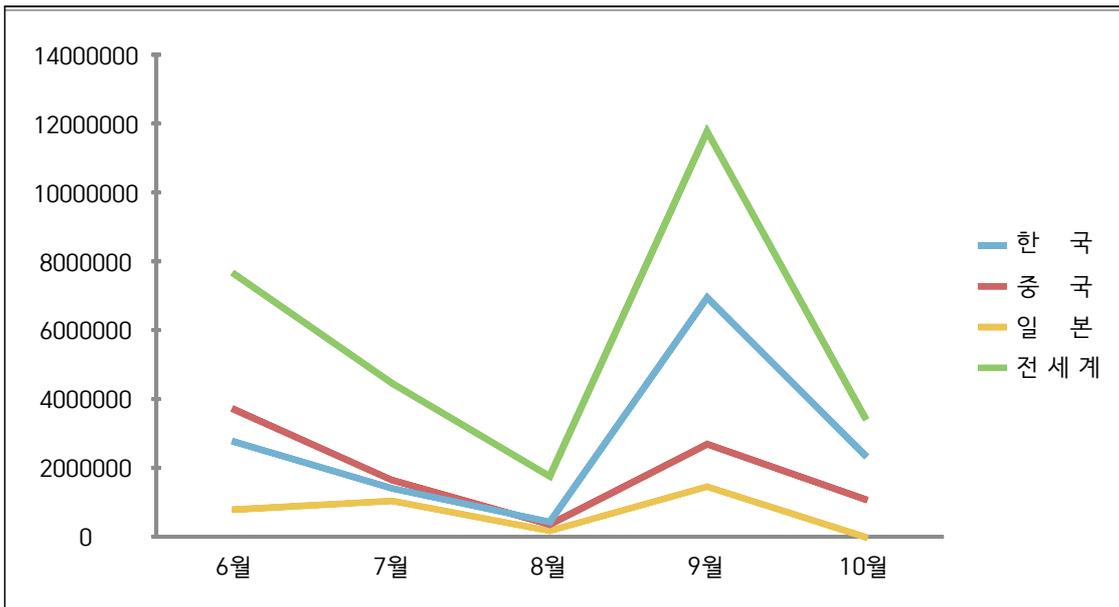
- VLCC 시장의 경우 수요 감소와 선복량 과잉으로 운임 하락세가 나타났다.
- 수에즈막스의 경우 서아프리카에서의 꾸준한 수요로 운임은 WS80 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경우 별다른 수요가 나타나지 않아 운임은 보험세를 유지했다.

## 세계 경제 및 선대 공급/해체 현황

### ○ 수주 잔량 추이 (Order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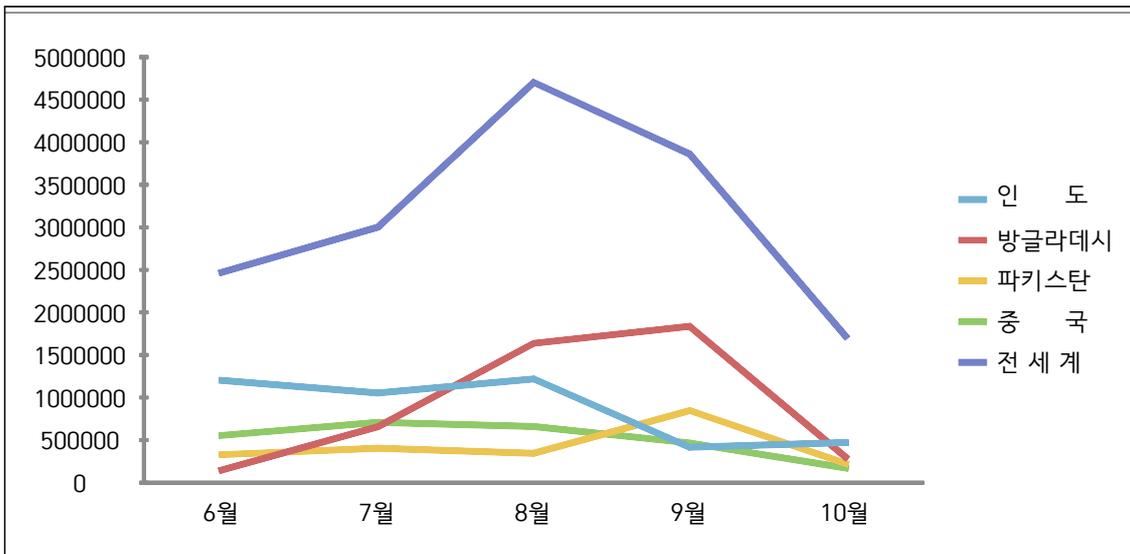


### ○ 신조 발주 추이 (Contracting by Country of Build, DW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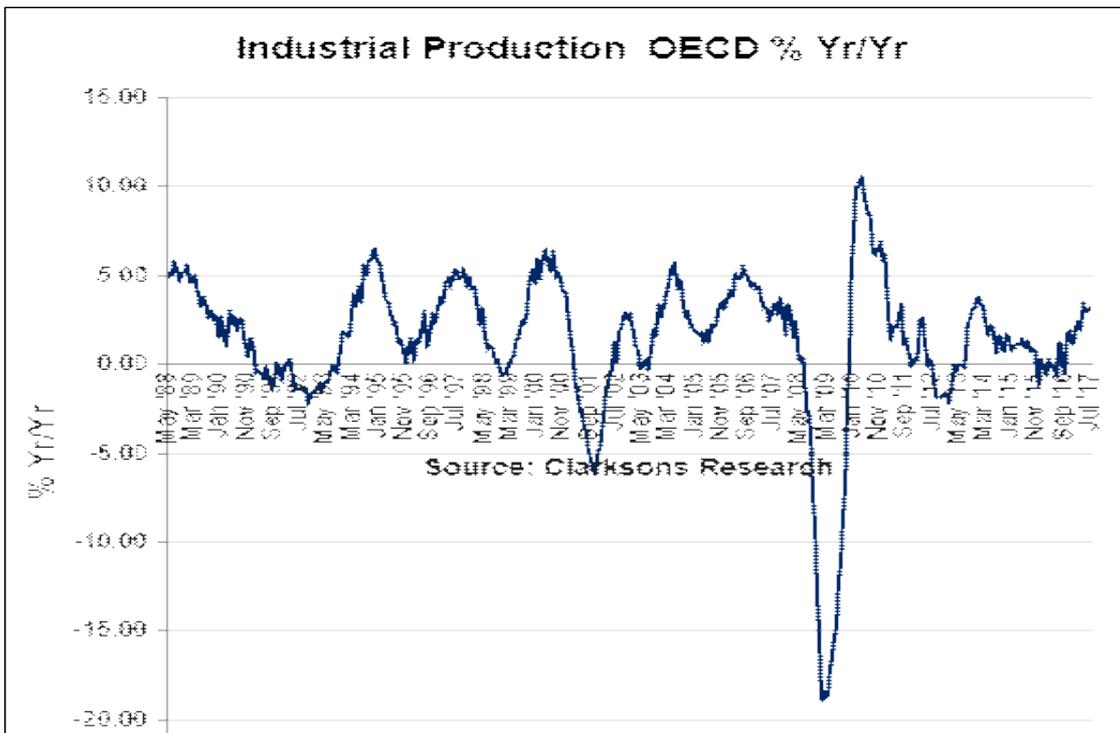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국	2,756,000	1,404,400	430,000	6,950,000	2,385,000
중 국	3,688,400	1,639,999	356,400	2,690,500	1,096,500
일 본	790,940	1,040,000	170,000	1,455,000	0
전 세 계	7,615,740	4,454,635	1,757,700	11,769,550	3,484,530

○ 선박 해체 추이 (DW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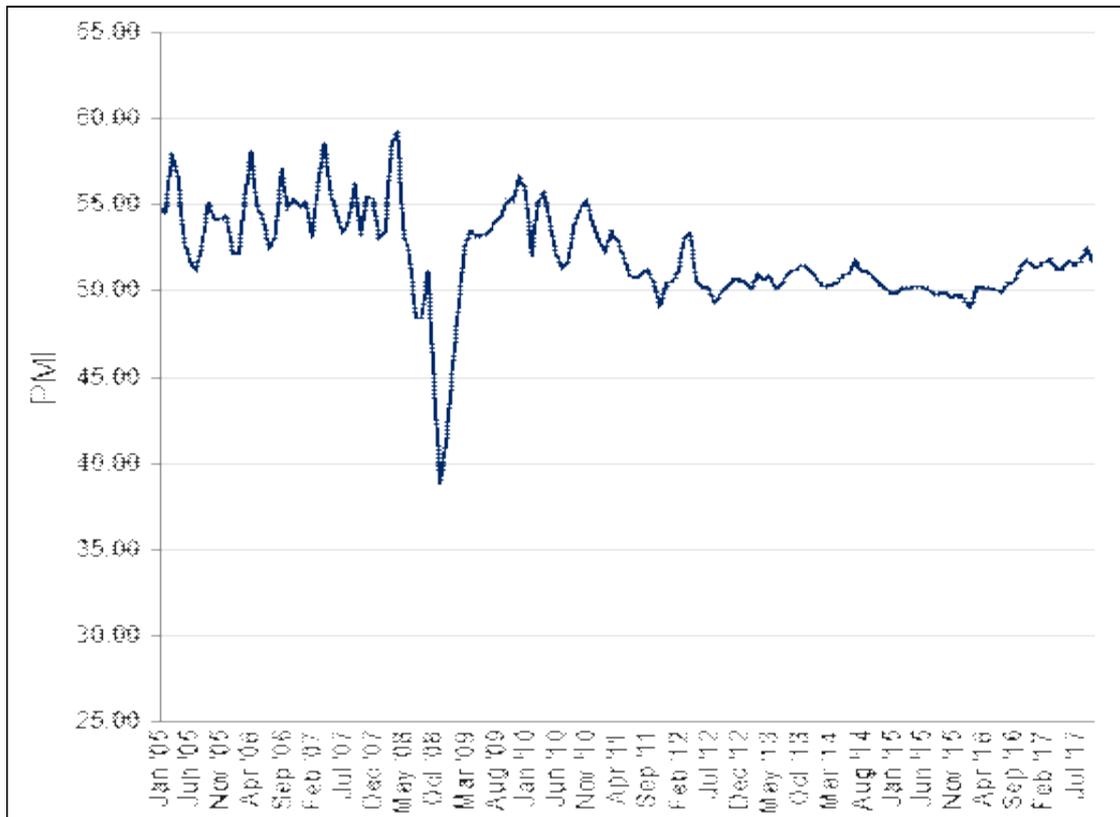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인도	1,201,319	1,053,775	1,218,770	415,135	471,814
방글라데시	148,064	655,878	1,637,589	1,837,923	301,569
파키스탄	328,525	404,357	344,817	847,116	223,949
중국	555,224	708,234	660,584	465,961	173,457
전 세계	2,471,985	3,002,054	4,704,054	3,861,438	1,723,330

○ OECD 산업 생산 증감률



○ 중국 PMI 추이



※ 지수가 50을 넘으면 제조업의 팽창을 의미하며, 50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을 나타냄

(출 처 : Clarkson Research)

### 1 한국해운연합(KSP), 구조조정 첫 성과

-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지난 8월 8일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첫 성과를 도출했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이번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한일항로와 동남아 항로에서 선박 7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 한일(부산-하카다/모지)항로에서는 그간 5개 선사에서 8척의 선박을 운항해 왔으나,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4척의 선박만을 운항하게 된다. 선사들은 선박 철수 이후 선박 교환, 공동운항을 통해 운항효율성을 높인다.
- 동남아(한-태국)항로에서는 기존에 8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이 가운데 2개 항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앞으로는 7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이에 따라 3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대상인 2개 항로를 운항하던 8개 선사는 통합된 1개 항로에 공동으로 선박을 투입하고, 번갈아 가며 운항할 예정이다.
- 통합항로는 KST(Korea Shipping Thailand)로 명명하며, 기항지는 인천-부산-호치민-람차방-방콕 등 기존항로를 감안하여 재구성했다. KSP 간사를 맡고 있는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은 “내년 1월 중순경 선박 철수와 동시에 신규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운항회사, 선박 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KSP선사들은 추후에도 베트남 하이퐁 항로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항로 합리화를 실시하고, 제3국간 항로 등 신규항로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KSP의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없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 해운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성과를 평가하며, “정부는 향후 설립될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선사의

자발적인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 처 : 해양수산부)

## 국제 해사이슈

### 1 머스크라인 함부르크 수드 인수 완료

- 머스크라인은 함부르크 수드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23개의 규제당국의 승인 완료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 인수는 2016년 12월 머스크라인의 인수 발표 이후 일 년 이내에 완료되었다.
- 머스크라인 CEO Soren Skou 씨는 “인수 합병이 완료됨으로써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출 처 : World Maritime News)